

“바이오혁신이 새로운 미래 연다” 혈액 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조산 예측

‘2019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33개국 121명 초청... 119개 강연 진행
바이오의약품 개발 현황·동향 살펴



2019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019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연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최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현황과 해외 규제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3개국 121명(해외 90명)이 방문해 119개 강연을 진행한다. 정부·학계·업계 등 3700여명이 참여해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각국의 선제적 규제 대응 방안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공개 포럼에서는 글로벌 항암세포치료제 등 최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혁신적 사고와 협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내외 규제기관, 업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건강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란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3일간 열리는 주제별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개발 동향과 규제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은 생체 면역시스템을 담당하는 항체를 조작해 만드는 ‘항암항체의약품’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치료 사례를 공유한다. ‘세포유전자치료제 포럼’은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와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동향을 살펴본다. ‘혁신기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연속공정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살펴보고, ‘첨단약물전달 기술 포럼’에서는 항암치료와 유전자치료를 위한 최첨단 나노-바이오 약물전달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연계 행사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공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청년 멘토링과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말레이시아, 페루 등 6개국 규제당국자와 국내 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 등이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규제동향과 개발·허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만삭 산모와 박테리아 구성·수 달라

산모의 혈액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 조산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조산 진단 키트도 개발을 앞뒀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사진)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 중의 혈액 내 특징적인 마이크로바이옴과 조산의 관련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SCI 국제학술지인 ‘미생물학 프론티어스’ 6월호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41명의 임신부(만삭 분만 산모 20명, 조산 산모 21명)를 대상으로 혈액을 수집, DNA를 추출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임신부는 장내 미생물과 같이 퍼미큐티스, 프로테오박테리아, 박테로이데테스 및 액티노박테리아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조산 산모는 만삭 분만 산모의 박테리아 수와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 산모는 퍼미큐티스와 박테로이데테스가 만삭 분만 산모에 비해 더 많은 양이 분포했고, 프로테오박테리아는 만삭 분만 산모에서 더 많은 양이 분포했다. 또 박테로이데스, 락토바실러스, 스프링고모나스, 파스티디오시필라, 바이셀라 및 부티리치코쿠스는 조산 산모에서 더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체 혈액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조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며 “추후 조산이 있는 여성에서 혈액 미생물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JW중외제약 ‘위너프’ 글로벌 경쟁력 입증

‘위너프 런천 심포지엄’ 개최

종합영양수액 중 항염·면역 최적화

아시아 최초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JW의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가 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2019 국제학술대회에서 ‘위너프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와 국제학술대회 규모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정맥경장영양전문의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유럽 국가에 수출된 ‘위너프’의 주요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코 바라조니 유럽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박 교수는 “위너프는 혈중 지질이 증



지난 2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위너프(수출명: 피노델) 런천 심포지엄’에서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가하는 우려가 적으며 염증 반응을 유익하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현재까지 출시된 3세대 종합영양수액 중에서 정제어유 함량이 가장 높아 오메가3로 인한 항염작용과 면역기능 개선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첫 유럽 수출 길에 오른 위너프는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으로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세경 기자

“장마철도 ‘패셔너블’하게 보내자”

기능·스타일 두 가지 모두 챙긴 ‘장마템’

초경량 소재에 방수·방풍 효과 뛰어난 세련된 디자인·다양한 컬러 선보여



▲ 코오롱스포츠의 ‘웨더코트’.
▲ 멜리사의 레인부츠 컬렉션.
/코오롱스포츠·멜리사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패션 업계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각 업체들은 디자인과 컬러를 다양화하고, 실용성을 높인 ‘장마템(장마+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 업체들이 비 오는 날 간편하게 입고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기능성에 집중해 투박하고 촌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세련된 디자인이 더해져 패션 아이템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실제, 코오롱스포츠가 지난해 봄·여름 시즌 첫 선을 보인 ‘웨더코트’는 80%가 넘는 판매율을 올리면서 효자 상품에 등극했다. 이 제품은 방수, 방풍, 활동성 등 아웃도어 특유의 기능은 살리면서도 넉넉한 실루엣, 긴 기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스포츠는 올해 ‘웨더코트’의 디자인과 기능을 한층 다양화해 선보이고 있다.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사파리, 일자로 쪽 떨어지는 형태의 코트 등 형태를 다양화하고, 트로피컬 등의 프린트를 적용했다. 또, 베이지, 딥블루 등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인 한편, 일상복으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타 패션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블랙야크와 밀레는 판초우의로 올여름 장마철을 겨냥했다.

블랙야크의 ‘야크 판초우의’는 기능과 스타일, 실용성 3가지를 두루 강조하고 있는데, 내수압 3000mm 코팅 원단에 봉제선을 막는 심실링 처리로 강한

비에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밀레의 ‘노난트 판초우의’는 트렌디한 색감과 디자인을 앞세웠다. 방수, 방풍 기능이 뛰어난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비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우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스틱과 로프를 걸어 간지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레인코트나 판초 우의와는 또 다른 스타일을 찾는다면 K2의 ‘물리 레인코트’를 주목해 볼만하다. 여성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속이 비치는 소재가 사용됐고, 몸통 앞·뒷면 길이가 달라 다른 레인코트와 차별화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해 가볍고, 하이테크 신공법인 고주파 접합 방식으로 접합 부위가 매끄럽게 마무리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마운티아의 ‘스타터 레인코트’도 있다. 트렌치 스타일의 이 제품은 짙은 레드 색상인 스칼렛과 블루그린 두 가지로 출시돼 일상에서도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다. 또한, 내수압 1500mm 방수 원단에 심실링 공법을 더해 방수 기능을 강화했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를 활용해 구김 복원력이 뛰어나다. 또 변색 방지 및 자외선 차단 기능과 별도의 패커블 주머니가 포함돼 있다.

레인코트가 있다면 레인부츠도 빼놓을 수 없다. 장마철에 빗물이 쉽게 흡수되는 운동화나 물에 취약한 가죽제품을 신고 다니면 하루종일 불편하기 때문이다. 방수기능에 디자인까지 다양해진 레인부츠가 최근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멜리사가 선보인 ‘레인부츠 컬렉션’은 블랙컬러의 모노톤 스타일부터 3가지 컬러가 섞인 비비드한 스타일까지 있어 다른 패션 아이템과 감각적인 매치가 가능하다. 특유의 과일향을 담아 녹녹한 장마철에도 상쾌하게 신을 수 있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을 더해 기능성을 살렸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아이스크림으로 만나는 ‘토이스토리4’

배스킨라빈스, 협업 프로모션 진행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가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먼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선보이는 블록팩 세트(1만9800원)는 배스킨라빈스의 ‘아몬드 봉봉’, ‘초콜릿 무스’, ‘체리 슈빌레’, ‘엄마는 외계인’ 네 가지 맛 블록팩과 ‘토이스토리 4’의 인기 캐릭터 버즈, 우디, 보핍, 외계인 캐릭터 리드 4종으로 구성됐다.

‘토이스토리 우산’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매장에서 ‘토이스토리 블록팩’과 케이크를 포함해 1만3500원 이상



구매 시 ‘토이스토리 우산’을 3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버즈, 우디, 보핍, 외계인 등 인기 캐릭터가 우산 전체 디자인에 적용됐고, 우디의 체크 셔츠를 활용하는 등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이 특징이다. 우산 꼭지에는 각 캐릭터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빗물받이 기능을 더해 높은 실용성을 갖췄다.

배스킨라빈스는 ‘토이스토리 4’ 콘셉트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신제품도 선보였다. /김민서 기자